

# 오케이속초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2022/05



오케이속초는 '오케이속초'의 얼얼마다 초성을 골라 나열한 표현으로, 속초의 문화를 발달하게 즐겨보자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오케이속초는 속초시와 속초문화관광재단이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추진 중인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브랜드명입니다.

##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시민들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하여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를 문화브랜드로 성장시켜나가는 사업입니다. 속초시는 '문화적 삶의 조화를 꿈꾸는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목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홈페이지  
[www.oksc.or.kr](http://www.oksc.or.kr)



문화도시 속초 페이스북  
[www.facebook.com/oksokcho](http://www.facebook.com/oksokcho)



속초문화관광재단 블로그  
[blog.naver.com/sokchocf](http://blog.naver.com/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페이스북  
[www.facebook.com/sokchocf](http://www.facebook.com/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유튜브  
유튜브에서 '속초문화관광재단' 검색



속초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www.sokchocf.or.kr](http://www.sokchocf.or.kr)



문화도시 속초 시민활동가 밴드  
[band.us/@oksokcho](https://band.us/@oksokcho)



속초문화관광재단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sokchocf](http://www.instagram.com/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밴드  
[band.us/@sokchocf](https://band.us/@sokchocf)



속초문화관광재단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홈페이지에서 '속초문화관광재단' 검색



Vol. 11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지  
오케이속초

발행처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

발행일 2022년 5월 1일

발행인 김철수

시민활동가 고유미, 김종현, 문정아, 박경심, 이애희, 장재환,  
전누리, 전태극, 정미현, 함연화

편집 박대우

디자인 장민정

표지사진 제1회 실향민족제(2016) 전태극

© 2022 속초문화관광재단

저작권자가 표시된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  
자가 갖습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글,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은 속초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전부 또는 일  
부를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2482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영랑동 570-5)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T. 033-636-0671 (문화도시TF팀)

F. 033-636-0665

www.sokchocf.or.kr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www.oksc.or.kr

목차

문화도시 알기

문화도시는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 02

김선애,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주목 인터뷰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사람들 > 06

속초시보건소 이상순 과장을 만나다

속초사색

속초의 바람[風]과 바람[望] > 10

전태극·박경심

공간의 발견

스스로 터득한 원리로 오토바이를 고쳐온 지 55년째 > 14

중앙오토바이 신영균 사장을 만나다

전일 신고합니다

나는 오늘도 바다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한다 > 18

고유미, 시민활동가

이야기 보따리

속초를 처음 만나는 그곳 동명동 > 20

김정환, 시민활동가

우리 곁의 사람들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사람 > 24

속초시 수어통역센터 한은숙 센터장을 만나다

속초 느낌표

가족이 이토록 편안한 공동체라니! > 28

박승연, 숲휴게소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 30



문화도시 알기

# 문화도시는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문화도시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냐고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움직이므로 문화자치, 시민력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힘을 가질 때에 문화자치는 이뤄질 것입니다.

02  
 >  
 03

2019년 첫 지정이 시작된 '문화도시'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식을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도시가 특별한 사업이어서일까요? 원주에서 문도녀(문화도시 여자의 준말)로 7년째 살고 있는 저는 이 질문에 '문화도시가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답을 내놓습니다.

문화도시는 시민 여러분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업입니다. 당신의 삶이 존중받고 있는지, 하고 싶은 일은 찾았는지, 아이와 함께 주말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당신을 둘러싼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업이 드물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도시가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냐고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는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움직이므로 문화자치, 시민력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지역사회를 문화적

로 바꾸는 힘을 가질 때에 문화자치는 이뤄질 것입니다.

#### 시민의 이야기는 힘이 세다

당신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이야기 자체가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의 시민사회 담론이 되고, 실제로 사회문제에 맞서는 논의를 불러일으킬 때, 우리의 이야기가 가치를 얻고 더 나은 무엇인가로 발현되는 것이지요. 이 발현의 과정은 각 도시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시의 역사, 환경, 문화자원이 다르고, 사는 사람도 다르니까요. 이처럼 도시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의 비전이 다를 것이고, 실천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다른 사업보다 훨씬 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 각자가 생각을 꺼내놓고 도시 안에서 다 같이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똑딱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주의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시민의 이야기를 담아서 '문화도시 81 실천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주가 군사도시

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도시의 변화가 곧 나의 변화가 되는 과제들이 많았고 이 과제들이 '원주테이블'에 올려져 실천 과제가 되었습니다. 원주테이블이란, '생각과 사람과 자원의 새로운 연-결'을 통해 문화도시 81 실천과제를 실현하는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테이블'입니다. 시민이 주도적으로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원주 스타일의 실천방식이지요. 이 '원주테이블'에서는 아래의 네 가지 과제가 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1) 어떤 과제를 실천 할지 2) 지역문제는 어떤 것이고, 시민의 생각은 어떤지 3) 잘 실천하려면 지역의 어떤 자원이 모여야 하는지 4) 이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지 등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의하고 나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람과 자원이 호출됩니다. 단,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실천까지 두루 책임져야 합니다. 원주테이블 앞에 '시민실천형 거버넌스'라고 부제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53개의 원주테이블, 692명의 시민

2021년에는 53개의 원주테이블이 열렸고, 692명이 참여해 65개의 과제를 실천했습니다. 테이블별로 중복된 것까지 포함하면 210개의 과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한 셈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포럼, 축제, 여행 등 다양한 형태로 원주테이블이 운영되면서 1만 2,160명이 초대를 받아 함께했고, 2021년 한 해 동안 문화도시를 만난 시민은 다 합해 9만 4,854명입니다.

원주테이블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럼에도 근사한 결과를 도출해낸 활동이 적지 않습니다. '아카데미극장 보존 테이블'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단관극장이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자 '아카데미극장을 살리자'라는 시민의 생각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가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했고, 지금은 시민 주도로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시민의 이야기가 행정을 움직였고, 시민들의 추억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진 설명

앞

130인 원탁회의에서 81개 실천과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

- 01 도시문화축제 댃닷다잇
- 02 아카데미극장 로비\_점을 선으로 잇는 사람들
- 03 장소특정형 퍼포먼스\_원주천에서 아카데미극장 가는 길

오른쪽

문화도시 원주의 6대 도시정체성을 표현한 다이어그램  
(사진 제공: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04  
∨  
05

‘도시 하루여행 테이블’은 ‘어떻게 하면 원주로 이주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는 관광드레PD 출신의 청년 문화기획자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공간들이 모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하루 동안 원주라는 도시를 여행했는데 그때의 핵심은 그들의 네트워킹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원주에 친구가 생기고 아는 공간이 생기면서 본래 낯설기만 했던 원주라는 지역에 정이 가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원주 시민들은 ‘문화정보 공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이에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 테이블’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그림책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림책도시 테이블’이 그림책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목소리는 그것이 문화적 삶 측면에서 보더라도 꼭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여기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렇게 81개의 과제를 하나하나 5년간 해결하다 보면 시민경험이 쌓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은 지속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문화도시 원주는 시민들의 생각을 모아 매주 「원주클라우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주의 질문은 ‘어린 시절 나의 꿈은?’이었습니다. 로컬 칼럼니스트 매버릭은 자신의 글에서 “어린 시절의 꿈들은 각자가 처했던 성장 배경,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매버릭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살다 보니 꼭 뭔가 되지 않아도, 그냥 아무나 되어도, 여전히 꿈꾸며 그럭저럭 사는 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제 꿈은 척추가 꼳꼳하고 무릎 관절이 튼튼한 다정한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꼭 뭔가 될 생각이 없어도] 내가 사는 도시의 문화도시를 만나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문화도시는 당신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문화적 삶을 위해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꼭 뭔가 드러나는 건 없어도] 사부작 사부작 재미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도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사람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장님 아래 3과 13팀으로, 건강증진과 외에도 보건정책과에서는 행정, 정신보건, 치매관리, 방역관리 사업을, 위생의약과에서는 공중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의약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그 일상 업무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06  
07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2월 21일. 그날부터 해가 두 번이나 지날 동안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 잡았다. 정체 모를 공포의 대상이었던 전염병이 어느새 ‘위드(with)’라는 단어가 붙을 만큼 익숙해진 지금까지, 시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사람들이 있다. 속초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속초시보건소를 찾아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아래의 인터뷰는 2022년 3월 말에 치러졌다. 그 점을 감안하여 읽어주시길 바란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기세로 요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고요. 요즘 보건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는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이상순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보건희망케어, 예방접종, 감염병관리, 재택치료의 5팀으로 구성되어 보건소 주요사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평상시에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곳이고,

코로나19 시대에 접어든 후로는 모든 직원들이 ‘코로나’ 감염병 관리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월말 기준으로) 1~2주일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는 코로나19 업무 이외 지역의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는 곳일 텐데요. 보건소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장님 아래 3과 13팀으로, 건강증진과 외에도 보건정책과에서는 행정, 정신보건, 치매관리, 방역관리 사업을, 위생의약과에서는 공중위생, 식품안전, 위생관리, 의약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그 일상 업무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역체계의 변화에 따라 이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종사자분들은, 코로나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의료종사자의 심리적 문제가 뉴스에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년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초기에는 주말과 밤낮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확진자 1명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직원이 투입되어 일일이 조사하고 자료화하느라, 퇴근하지 못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한 명만 발생해도 예방하고 방지하자'는 의식이 커서 굉장히 세밀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했어요. 검사 결과가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 출근 전에 격리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새벽에 출근하는 게 반복되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쳐갔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린 직원들의 지친 얼굴을 봤을 때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20~30대 초반인데, 어느 순간부터 직원들의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입사하자마자 코로나 상황에 투입되기도 했어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들도 생겨났습니다. 심리적 고통으로 병원을 찾는 직원을 볼 때는 역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금은 인력을 충원하고 로테이션 근무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보건소 직원들은 방호복의 장시간 착용과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와의 대면상담 등 고위험의 근무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시민의 건강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꼽으신다면요?**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들과 함께 선 이상순 과장.





젊었을 때는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돌보드리는 서비스 제공에 보람을 느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덧붙여서, 젊은 직원들이 여러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사람 얼굴에 표정이 없다는 건,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시민분들도 저희의 노력을 많이 알아주셔서, 직원들의 표정이 많이 더 밝아졌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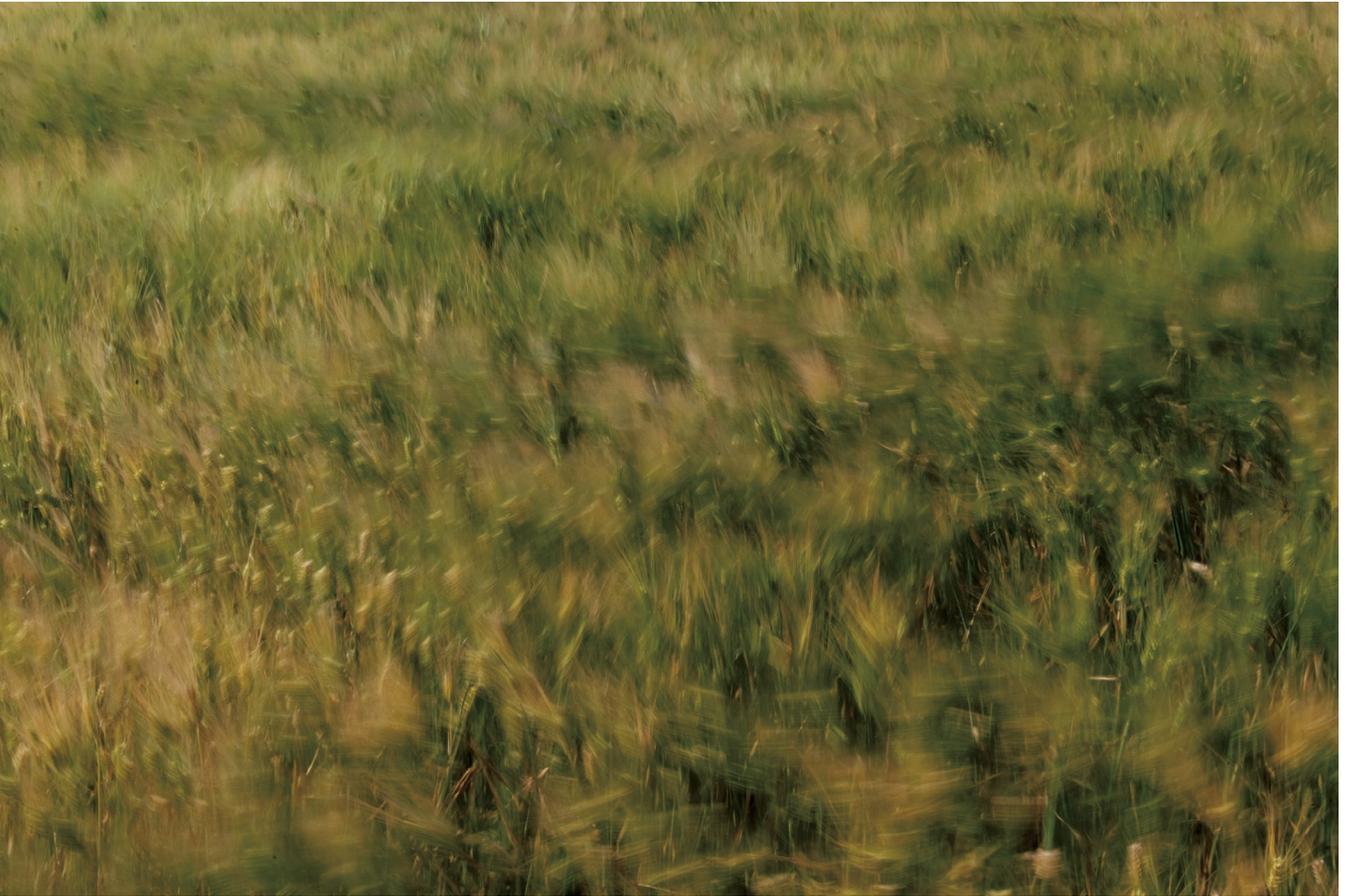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자가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켜나가는 작은 실천들이 미래의 감염병 예방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웃음)

**이제는 코로나의 정점을 넘어서고 '위드코로나'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시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낮추고 시민들이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본방역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의 정부 지침을 잘 이행하신다면,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가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백신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고 지내요.

이상순 과장은 영동 지역 토박이로서 대학을 졸업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속초시보건소의 한 자리를 지켜왔다. 이처럼 아무리 힘이 들어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시민들을 위해 정면으로 맞서준 속초시보건소의 사람들. 2년의 긴 싸움에 끝이 보이는 것은, 쉬지 않고 바이러스와 싸워준 속초시의 숨은 영웅들 덕분이 아닐까.



보리밭에 부는 바람(씨리제) © 전태극

속초사색

바람의 사유.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다.



눈에 부는 바람(소아벌) © 전태극



함경남도 영흥군민회 망향탑 © 박경심

## 속초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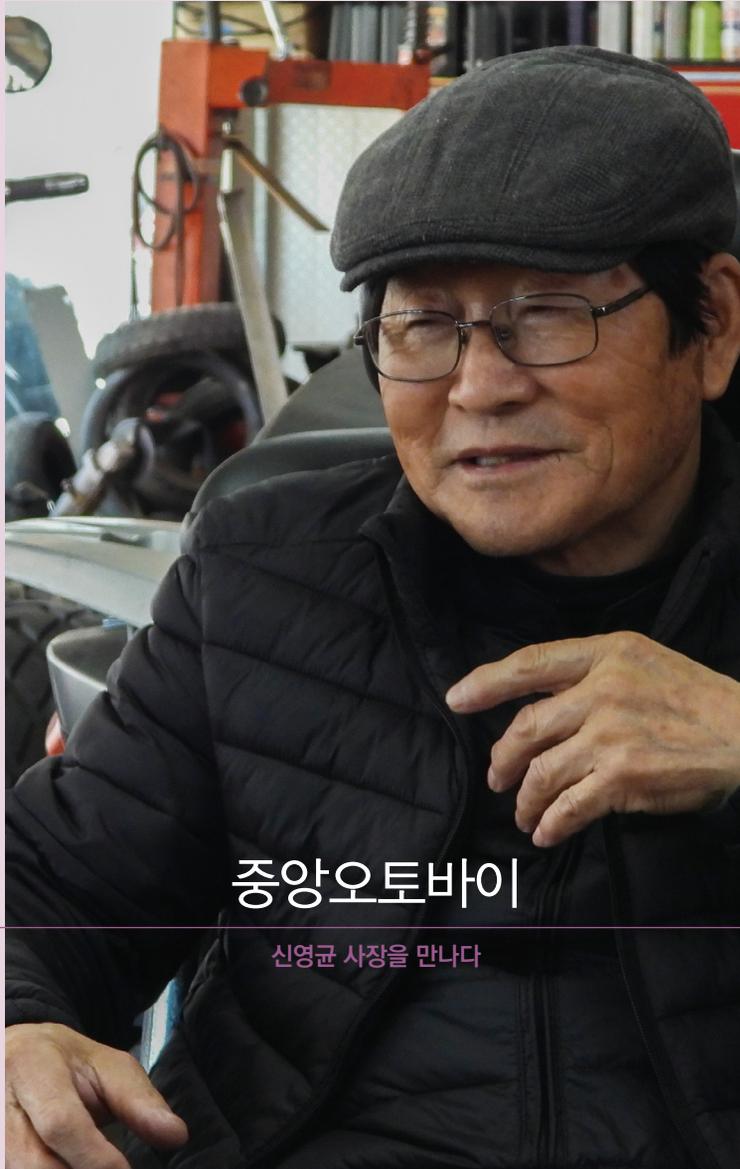
속초의 실향민들에게 고향은 멀고 먼, 갈 수 없는 땅이다. 망향탑과 수복탑을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 탑들을 둘러싸고 아 파트들이 무심하게 서 있다.



속초 동명동사거리의 수목탑 © 빅경심

공간의 발견

# 스스로 터득한 원리로 오토바이를 고쳐온 지 55년째



중양오토바이

신영균 사장을 만나다

© 2024 M



© 박지현

**업종** 이륜자동차 수리업  
**주소**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67번길 53-8  
**전화** 033-636-7728  
**이용 시간** 09:00-18:00 (일요일 휴무)

어느덧 햇살이 점점 따스해지고 바람도 포근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웬지 먼 곳으로 바람을 쐬려가면 좋겠다 싶은 날씨가. 간혹 속초로 바이크를 타고 오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달리는 기분이란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짜릿할 것 같다. '언젠가는 나도 그런 속도와 바람을 느껴볼 수 있겠지' 상상하며 속초 오토바이의 산 증인, 중앙오토바이 신영균 사장님을 만나러 갔다.

**속초에 오토바이 가게가 열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곳 중앙오토바이가 50년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가게라고요.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 문을 열었나요?**

1967년 개업했으니 도합 55년째네요. 제가 스물여섯 살 때죠. 처음에는 동명동 경찰서 바로 옆에서 문을 열었어요. 그 뒤로 고성 아아진에서 5년, 부산 동래구에서 기사로 1년, 경북 영천에서 반년가량 일했어요. 그때쯤에 특허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속초에 있을 때 미리 특허를 출원했던 오토바이 부품(브레이크 연결장치) 발명특허가 등록이 됐다고요. 그 특허를 가지고 서울에서 동업을 1년 반 정도 하다가 동명동으로 다시 온 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 뒤로 15년간 동명동과 중앙시장에서 있었고. 지금 여기 금호동으로 온 지는 4년 되었네요.

**특허출원이라니 대단하세요. 어떤 특허를 내셨나요?**

하이브리드 오토바이 특허권과 오토바이 부품(브레이크 연결장치) 발명특허권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기름과 전기를 같이 쓰는 오토바이 기술로 4년 전에 특허를 냈어요. 서울의 모 회사에서 특허권을 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유하면서 셋째아들이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1년, 캄보디아에서 4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특허는 40대쯤에 낸 거예요. 오토바이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뒷바퀴만 잡혀요. 앞바퀴는

손으로 잡아야 하죠. 두 개를 동시에 잡아야 제동이 됩니까. 하지만 뒷브레이크만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무조건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돼요. 그래서 뒷브레이크만 발로 밟아도 앞브레이크가 같이 잡히게끔 만든 부품을 특허냈습니다.

**멋지시네요.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시겠어요? 본래 여기 속초 출신이신가요?**

아버지 고향은 서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고성으로 와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하셨지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장을 다 뺏겼어요. 그 뒤로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군인 차 관련 일을 하시다가 6·25 때 돌아가시고 제가 9살에 속초로 피난 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원래는 금반지, 목걸이,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방을 운영했습니다. 열여덟에 속초 문천당에 취직해 1년 6개월 동안 수리 일을 배우고 나와서 청호동 갯배 선착장 부근에 시계방을 차리고 몇 년 있었어요.

그즈음에 제가 기아 CL90(90cc 모델) 중고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자주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시동이 안 걸려서 거의 매일 오토바이 센터에 끌고 갔어요. 근데 몇 번을 가서 부품을 갈고 수리를 해도 똑같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한번은 제가 양양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고장 나는 바람에 속초까지 밤새 끌고 왔어요. 얼마나 열이 받던지, 오토바이 센터에 가서 그동안 고친 부품 다 빼서 가져가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어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고쳤는데 안 되니까. 그 밤에 돈을 싹 돌려받았어요. 부품은 빼는 게 더 일이라 그런지 안 빼고 돈을 돌려주더라구요.(웃음) 그래서 그 돈으로 공구상에 가서 오토바이 뜯는 공구를 사가지고 시계방에 오토바이를 가져와 직접 고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기모터도 만들어봤고 제너레이터(발전기)에 대해 좀 알았으니 뜯어볼 수 있었죠. 제너레이터를 뜯어보니 코일이 다 탔더라고요. 속초에는 파는 곳이 없어 서울 청계천까지 가서 코일을 사다가 다 감아서 고쳤더니 시동도 잘 걸리고 너무 잘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



“가장 오래된 단골손님은 대전에 사는 휠체어만 겨우 타는 장애인분입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몸에 맞춰서 휠체어를 타고 오토바이에 앉아 소형차처럼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해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보람을 많이 느끼지요.”

가 직접 오토바이를 고쳤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뒤로 오토바이가 망가지면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오더라고요. 간성에서 전기회사 다닌다는 사람도 찾아왔어요. 오토바이 일이 늘어나다 보니 시계방에서 이것저것 다 고치기가 똥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 아야진으로 가서 오토바이 센터를 열었어요. 그 뒤로도 기술을 어디 가서 배운 건 아니고요. 내연기관에 대한 책도 보고 하면서 그냥 혼자 원리를 파악해서 스스로 터득해가며 배웠어요.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장면을 볼 때마다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토바이 전성시대는 언제였을까요? 가게의 전성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제가 서른 다섯 살 즈음이 오토바이 전성기였어요. 그 시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일주도 하고 놀러 많이 다녔지요. 가게의 전성기도 그때였죠. 기사 두 명을 데리고도 밤새 일할 정도로 바빴고 장사도 잘돼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당시에 여기 속초에서 서른 명이 모여서 부산으로 해서 남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한 바퀴 돌아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종주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토바이가 큰 게 없어서(제일 큰 게 125cc 정도) 고장이 잘 났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필히 따라가야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다닐 수가 없었죠.

**중앙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가장 오래된 단골손님도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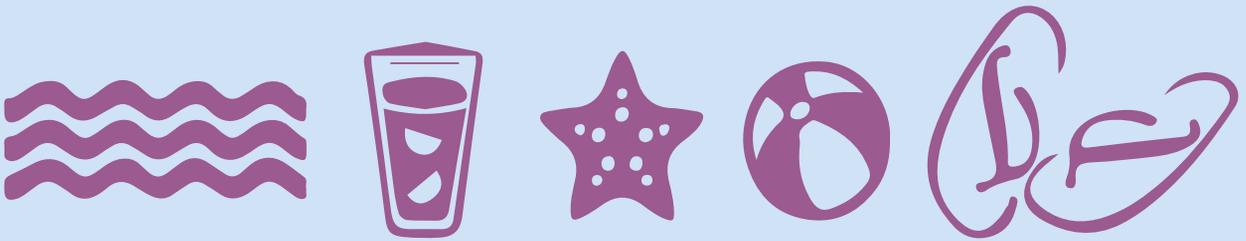
옛날에 아야진 살던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서 3륜 오토바이를 제가 만들어드렸어요. 그때는 바퀴 두 개가 전부였던 시절이고 3륜 오토바이를 만드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분이 그 3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을 다녔는데 서울 방송국에서 그분을 쫓아와서 3륜 오토바이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랑 제가 6시 내고향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단골손님은 대전에 사는 휠체어만 겨우 타는 장애인분입니다. 당시에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몸에 맞춰서 휠체어를 타고 오토바이에 앉아 소형차처럼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해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보람을 많이 느끼지요.

오토바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발명, 특허까지 낸 사장님께서 혼자서만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많이 바쁘고 힘들 것 같은데 오랜 연륜을 쌓은 데서 나오는 여유로움 때문인지 자꾸만 괜찮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보았더니 “이제는 계획이 없다” 하며 웃음으로 답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며 예쁜 손주가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그분의 가장 멋진 계획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기술을 습득해온 사장님을 보니 ‘진짜 교육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누구보다 멋진 본보기의 인물이 속초에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전입 신고합니다

나는 오늘도  
바다를 만나며  
하루를 시작한다



**고유미**

속초에서 바다가 가장 예쁜 등대전망대 아래서 언니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잠시 멈췄지만 여행을 좋아해 지구 한 바퀴를 걷고 싶은 꿈을 여전히 품고 있다. 작년 여름부터 서둘게나마 '나만의 글쓰기'를 시작했고, 언젠가는 책 한 권을 내고 싶은 꿈을 품고 있다. '브런치'에서 '지금도 바다'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다.

속초는 나의 20대 청춘의 여행지였다. 여름마다 친구들과 복작대며 버스로 예닐곱 시간을 달려 찾았던 곳이다. 이제는 맘만 먹으면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은 핫한 지역으로 새로운 바람을 맞고 있다.

지금부터 6년 전 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서울을 떠나 속초로 이사를 왔다. ‘이 낯선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서울에서도 중심지 신촌에서 살았기에, 밤이 되면 불빛도 없는 인적이 드문 이 도시가 낯설었다. 특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온 이방인을 보는 주위의 시선도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언니네 가족보다 1년 늦게 이주해서, 같이 건물을 짓고 카페의 문을 열며 바쁘게 살다 보니 벌써 5년이 훌쩍 지나갔다. 속초를 선택한 건 가족 모두가 바다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니, 사랑한다. 속초에서 고성까지 이어진 낭만가의도의 어디를 가든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어느 길이든 방파제와 등대를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영랑동 등대전망대 아래에 앉아 바로 앞의 옥색 바다가 펼쳐진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하다. 그렇게 우리는 우연히 굽이굽이 길을 지나다가 만난 바다를 끝내 잊지 못해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속초는 시청을 기점으로 승용차로 30분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를 걸어도 설악산을 볼 수 있고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몇 년간의 난개발로 시야가 많이 가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옛것과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바람이 있다면, 더 이상의 변화보다는 속초다움을 남기고 오래 보존했으면 좋겠다.

‘코시국’에 다른 곳으로 여행 가기보다는 작년부터 속초의 구석구석을 걷다 보니 애정도 쑥쑥 커져만 갔다. 일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집에서 5분이면 만나는 영랑호의 사계절을 보며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넉넉한 마음에 머릿속에서 맴돌던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얼마 전, 오랫동안 보지 못한 반가운 친구의 전화가 왔다.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는 거니?” “나, 글 쓴다. 여기저기 걷고 다독이며 내 마음속을 풀어보고 싶어.” “잘 됐다. 공기 좋은 곳에서 네가 좋아하는 바다를 보니 이제 꿈을 이루는구나.”

꿈은 꿈으로만 남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꿈을 펼치기 시작하려는 내가 조금은 쑥스럽다. 나의 막연한 꿈을 좇아 여기로 와서 많은 물질적인 생활을 포기하니 덤으로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 옷도 유행을 좇지 않고 편하게 입고 봄에 피는 벚꽃길을 걸으며 행복해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를 보다 보니 언제부턴가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둘씩 ‘내려놓다’ 보니 불편하지 않다.

내가 바다로 자주 여행을 다닌 건, 끝없는 바다를 ‘그리운 엄마의 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그 바다가 나를 반겨준다. 집에서도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낭만적인 속초를 떠나고 싶지 않다. 나에게 따뜻한 마음을 열어준 속초가 아직은 좋다.

난 이곳을 여행하듯 살고 싶다. 벌써 여행은 시작되었고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후회할 거 같아 느려도 멈추지 않고 구석구석 사람 냄새를 맡으며 이곳, 속초를 느낄 것이다.

이야기 보따리

# 속초를 처음 만나는 그곳 동명동 탄생, 성장, 아픔, 기쁨을 기억하는 땅



거리를 걷다 보면 매일 보는 동네 풍경임에도 가끔씩 낯선 느낌이 든다. 여기저기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마을 사람들만 다니던 한적한 골목길이 관광객들로 북적이다.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많아야 속초 사람들이 먹고살지’라는 생각을 하며 나 또한 관광객 모드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려본다. 그러다가 운 좋은 날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광고를 만날 때도 있다. 어떤 제작자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속초에 살고 있는 나조차도 설레게 하는 그것은 ‘그곳… 속초’라는 네 글자의 시외버스 광고다. 이 광고는 그곳에 가면 새로움, 행복으로 가득할 것만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버스를 타고 속초에 도착한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그곳 속초는 동명동이다. 동명동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리면 비릿한 바다 냄새가 이곳이 속초임을 알려준다. 그 내음에 이끌려 항구 쪽으로 걷다보면 분단의 역사를 말해주는 수복기념탑이 보이고, 콘크리트로 잔뜩 치장한 항구에 크루즈선도 보인다. 또한 속초 1번지 속초등대가 성황봉에 자리를 잡고 서서 그 위용을 자랑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 위용에 이끌려 걷다 보면 영금정을 만나는데, 그곳에선 시원한 파도와 속초만의 바다색, 맛깔스런 횡집들이 방문객을 유혹한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들 중에서 이 마을 동명동이 속초의 탄생과 성장, 아픔, 기쁨을 모두 간직한 곳임을 아는 이는 드물 것이다.

동명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온 속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요,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곳은 영랑동의 새쪽마을과 함께 속초 어민들이 거주했던 가장 오래된 지역으로, 영금정 입구의 마쪽마을(마짜개)과 속초감리교회 뒤편 골짜기 마을인 장안마을, 속초 역사(기차역)가 있던 우렁골 등이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내 방면으로 형성된 마을 대부분이 6·25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한 데 반해, 동명동에 위치한 마쪽마을과 장안마을은 그보다 더 역사가 길다.

하지만 속초리 토성을 발굴하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속초리 토성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외에는 다른 단서가 없어 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10년 장안골에서 속초리 토성의 터로 추정되는 다수의 명문 기와<sup>1)</sup>와 연화문 기와 등이 발견되었다. 이후 2012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중에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면서 속초리 성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었다.

발굴 결과 이곳에는 돌출된 자연 언덕을 이용한 치(雉) 내지 응성(甕城)<sup>2)</sup> 용도의 방어용 토성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외에도 꽤 유의미한 유물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천경삼년(天慶三年)’이라는 글씨가 쓰인 기와 조각이다. 이 유물은 서기 1113년에 건물이나 건축되거나 기와를 교체했다는 기록이 담긴 중요한 자료로서, 토성이 이미 고려시대 전기에 만들어졌다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발굴 결과로만 볼 때 이 성은 고려 전기의 동여진 해적 같은 소규모 해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고,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횡행한 왜구의 침입과도 연관된다. 또한 이는 고려시대에 이미 성 인근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준다. 조선시대 군사요충지였던 청초호에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주둔했음을 고려한다면 그에 인접한 이곳에 장안마을을 비롯한 비교적 큰 마을이 존재했다는 것도 추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안마을의 규모는 축소되고, 그 대신 영랑동의 새쪽마을과 동명동 바닷가 마을인 마쪽마을이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은 정어리가 많이 잡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속초 축항이 만들어진 뒤로는 대포리를 대체하는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새쪽마을에 시장이 열리고, 속초감리교회 아래 바닷가 쪽으로는 신상가 지대가 형성되어 주로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철물점, 잡화점, 요정 등의 건물들이 들어섰다.

속초감리교회는 장안골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어 동명동의 희로애락을 모두 보고 겪은 곳이다. 1927년 미국에서 건너와 원산 지방에서 활동하던 감리교회 소속 여성 선교사 쿠퍼(K. Cooper)가 속초에 선교 활동을 위해 내려와, 그의 노력으로 1927년에 문을 열었다. 교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속초에는 남편 잃은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주로 했다고 한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회가 건축되자 양양경찰서에서 국방헌금을 내놓으라고 강요했고 이에 교회 청년들이 반

**사진 설명**

**앞쪽** 1970년대 동명동 시외버스터미널

**오른쪽** 1955년 속초감리교회

(사진 제공: 속초시립박물관)



발하자 독립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청년 대표자를 2개월간 복역시킨 일이 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정복을 하고 칼을 찬 순사를 배치하여 공포감을 조성했고, 1941년에는 교회를 강제로 빼앗아 병사(兵舍)로 사용하기도 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속초는 북한에 속하게 되어 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 설교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교회 비품을 몰수하는가 하면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공산군의 병사로 또 다시 사용되는 등 환란의 세월을 보냈다.<sup>3)</sup>

6·25가 발발하고 1년 후 속초는 수복을 맞이했다. 수복 이후 동명동 인근에 미군 부대와 국군 1군단이 진주했고 영랑동과 동명동은 이를 기반으로 여전히 속초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도맡았다. 시장과 음식점, 다방 등이 모두 이곳에 몰려 있어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중심이 어판장이 설치된 중앙동으로 옮겨갔다. 그 뒤 속초가 수산업 도시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1980년대부터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속초항 북방파제 공사를 추진하여 1994년에 완공했다. 1990년대 중반에는 어선 전용부두도 조성하여 더욱 안전하게 조업과 접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항만 공사로 동명항은 현대식 항구로 바뀌었다. 하지만 본래 그곳에 자리잡고 있던 백사장과 바닷가의 작은 바위들은 콘크리트 아래로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공사가 없을 줄만 알았던 이곳에서 또 다시 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이다 보니 곳곳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그나마 남아 있던 속초의 흔적들도 하나둘 지워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그곳... 속초'의 설렘을 안고 달려온 방문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1) 글씨가 적혀 있는 기와를 말한다.

2) 성벽에 접근한 적을 방어하기 위한 성곽 구조물이다.

3) 『속초감리교회 70년사』(1997)를 참조했다.

한은숙 센터장이 '농인'을 뜻하는 수어를 보여주고 있다.



© 정미현

우리 결의 사람들

##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사람

속초시 수어통역센터 한은숙 센터장을 만나다

인터뷰 시민활동가 정미현

“어린 시절, 막냇동생이 목청껏 소리 내어 울면서 ‘엄마’를 부르니  
엄마가 오는 걸 보고 처음으로 제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막내를 제외하고는 4남매가 모두 농인이었으니,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인식하질 못했죠. 어릴 적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수화를 익히고 농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니, 농인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 생각에 일을 시작해 이곳 속초까지 오게 되었네요.”

24  
∨  
25

무언극을 본 기억이 있다. 말 없는 배우들의 표정과 몸  
짓에서 그들의 언어가 들리는 듯했다. 배우들의 표정  
과 몸짓을 보며,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눈에 담았다.  
귀로 듣는 것만이 듣는 것은 아니리라. 때때로 우리는  
‘말’ 없이 더 많은 것들을 주고받는다. 봄이 찾아오다  
주춤한 오후, 속초시 수어통역센터에서 한은숙 센터장  
을 만났다. 통역사를 통해 이어진 대화였지만, 우리는  
분명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대화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직장에 다  
니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포항에서 결혼생활을 시  
작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지내왔습니다. 포항에서  
는 경북농아인협회 포항시 지부장으로 6년, 포항시 수어  
통역센터 농아인 통역사로 5년 일했고요. 속초에 온 것은  
2021년 속초지역 수어통역센터의 센터장 공모에 지원해  
발탁되면서였지요.

**언제부터 청각장애를 갖게 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  
어통역센터장님이 되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세 살 때 열병으로 청각장애를 얻었어요. 5남매인데 언  
니, 오빠, 동생, 그리고 저까지 네 명이 다 농인(청각장애  
를 가진 사람)이고, 막냇동생만 청인(농인에 비해 청각장  
애가 적은 사람)입니다. 병원에서 듣기론, 선천적 장애나  
유전은 아니고, 강원도 원주의 산골에 살 적에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청력을 손실한 것이라 합니다.

어린 시절, 막냇동생이 목청껏 소리 내어 울면서 ‘엄마’를  
부르니 엄마가 오는 걸 보고 처음으로 제가 듣지 못한다  
는 걸 알았어요. 막내를 제외하고는 4남매가 모두 농인이  
었으니,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인식하질 못  
했죠. 어릴 적부터 가족들 사이에서 수화를 익히고 농학  
교까지 졸업하고 나니, 농인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 생  
각에 일을 시작해 이곳 속초까지 오게 되었네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코다>라는 영화가 3관왕을  
차지하며 화제에 올랐지요. 이 영화를 통해서 농인부모를  
가진 자녀를 말하는 ‘코다’라는 용어를 알게 되기도 했습**

**니다. 센터장님께서도 농인부모로서 청인자녀를 양육할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딸이 갓난아기일 때 아파서 울어도 제가 듣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유치원 재롱잔치 때 딸이 노래를 부르고 와서 '내 노래 들었어?' 하기에 (제 수화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니 딸이 참 좋아했던 기억도 있어요. 마음이 아팠죠.

딸이 고등학생일 때는 학교 음악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참석해서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연주가 끝난 뒤 딸이 수화로 통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는데, 딸은 참 당당했어요. 처음엔 어리둥절하시던 선생님들도 나중에 감동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밖에서도 저와 같이 있으면 꼭 수화만 사용해요.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죠.

**비장애인들에게는 '농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인들 사이에서는 '농인사회' 또는 '농인문화'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독특하고 뚜렷한 특징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우선 청인들이 이름을 부르듯, 농인들도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얼굴이름'이 있어요. 손으로 표현하는 이름이죠. 얼굴이름을 만들 때는 본래 이름의 한문 뜻을 빌리거나 그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여 만듭니다.

또한 청인은 소리를 내어 부르면 들을 수 있지만, 농인은 가볍게 어깨나 팔을 치며 불러주어야 해요. 이때 너무 세게 치거나 인상을 쓰게 되면 농인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표정으로 가볍게 톡톡 치며 불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화에서 얼굴 표정은 '억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농인들이 얼굴 표정을 강하게 드러낼 때는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입 모양이나 표정을 볼 수가 없어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죠. 코로나 초기에는 수화통역사가 뉴스통역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많은 건의들이 있었고, 이후부터 마스크를 벗고 나왔어요. 센터에서도 중요한 통역을 다닐 때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요즘 새로운 공부, '사진'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적성에 잘 맞으는지, 그리고 어떤 계기로 사진자격증 공부를 결심하셨는지 궁금해지네요.**

5년 전 카메라를 구입하고 교육 받을 곳이 없었는데, 이번에 『설악신문』을 보고 예술사진교육사2급 과정을 수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회원들을 예쁘게 찍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잘 나온 사



“농인들은 정보 접근에 부족함이 있어요. 다양한 정보 결핍의 해소를 도울 통역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한 명의 통역사가 민원, 병원, 법원, 경찰서 등의 업무를 다 처리하기엔 각 영역 전문지식의 한계도 있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도 똑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초 지역에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를 위한 공간’과 ‘장애문화체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또 협회 소식지에 들어갈 사진을 위해서도 사진기술을 익히고 싶었죠. 요즘에는 강사님을 통해서 너무 즐겁게 사진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강사님과 2시간 정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대화가 원활하진 않지만, 서로 맞춰가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어느 날에는 비까지 내렸는데도 2시간 걷는 게 힘든 줄 모를 정도였어요.

**‘수화’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언어 같아요. 속초 시민들에게 ‘수화’의 매력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어요? 덧붙여, 수화 한 단어를 소개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는 정말 매력적인 언어예요. 손으로 모든 걸 표현하니까요. 청인은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지만, 농인은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해요. 손 하나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해요. 많은 단어 중 ‘감사합니다’를 알려드릴게요. 왼손 등이 위로 올라오도록 놓고, 오른손 날로 왼손 등을 가볍게 두세 번 톡톡 치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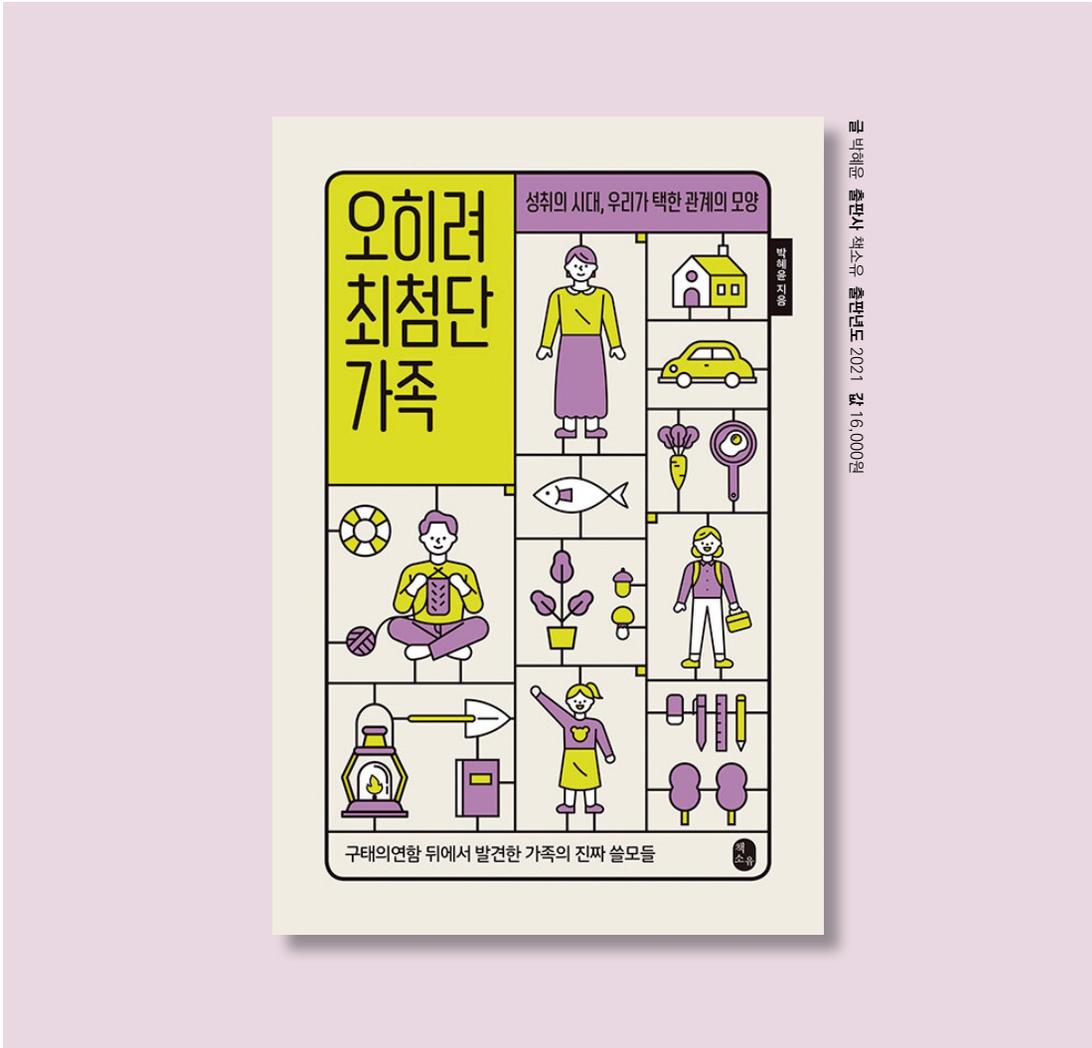
요즘은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벽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속초시가 비장애와 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인들은 정보 접근에 부족함이 있어요. 다양한 정보 결핍의 해소를 도울 통역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한 명의 통역사가 민원, 병원, 법원, 경찰서 등의 업무를 다 처리하기엔 각 영역 전문지식의 한계도 있죠. 속초에는 현재 4명의 수화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의 수는 회원만 186명, 비회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습니다. 더 많은 통역사와 더불어, 각 영역의 전문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비장애인도 똑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초 지역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장애문화체험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 가족이 이토록 편안한 공동체라니!

## 『오히려 최첨단 가족』



**박승연** 남편과 아무 연고 없는 속초에 와서 산 지 4년 차가 되었습니다. 청대산 아래 정겨운 시골 마을에서 조그만 북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름을 흙에 섞어 갈아엎은 밭 근처를 지나며, 코를 찌르는 그 냄새에도 실실 웃음이 배어 나오는 계절이다. 산책 중에 불현듯 울리는 핸드폰 진동 소리는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통화에서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하신 말씀에 상처를 받은 후라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관계에 이르는 것이 마냥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하던 차에 가족과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이 책을 만났다.

『오히려 최첨단 가족』에는 엄마와 아빠, 두 딸이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며, 기대와 의무 속에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 엄마인 박혜윤 작가는 “(서로에게서) 행복을 구하지 않고, 의무도 없으며, 더 발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현재의 나로도 충분한 관계가 가능할지 궁금했다”라고 말한다. 아빠에게는 경제적인 의무가 없으며, 엄마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줄 의무가 없다. 물론 자녀에게도 부모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살 의무가 없다. 이들은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책임을 다할 뿐, 자신을 위해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토록 자유롭고 편안한 공동체라니! 신선한 접근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족이 아무 기준 없이 마구잡이로 사는 것은 아니다. 부모는 자기 나름의 분명한 인생철학이 있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함과 동시에 똑같은 수준으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먼저 이들은 사회의 경쟁과 평가 기준을 가족 안에 들이대지 않는다. 작가는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내 준비는, 아이가 스스로 행복해지고 편안한 것을 찾

아가는 법을 연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 국사회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식은 그에 보답하듯 공부를 열심히 하며 성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 과정은 순조롭지 못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서로를 향한 부담감과 죄책감은 때로 짐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또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한다. 때로 자녀가 기분이 나빠 저녁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둔다. 스스로 감정을 해결하게 시간을 주고, 그 대신 식사를 하지 않아서 오는 굶주림도 스스로 감당하게 한다.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는 이유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서로에게 짊어지게 한다. 놀랍게도 이 책을 읽는 동안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사랑이란 말을 빼고 사랑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

가족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서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상처 주기도 쉽다. “좀 더 풍요롭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누리겠다는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간다”라고 말하는 작가의 맺음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가족은 정말 그런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이 희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길로 발을 맞춰 가는 것. 이 특별한 가족의 삶을 모두가 똑같이 따라 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이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저마다 자기 가족이 갖고 있는 영킨 실타래를 풀어낼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속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소식



### 시민활동가 거버넌스 오리엔테이션

속초시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속초시를 시민들이 더욱 애착을 갖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활동가를 모집했습니다. 총 8가지 시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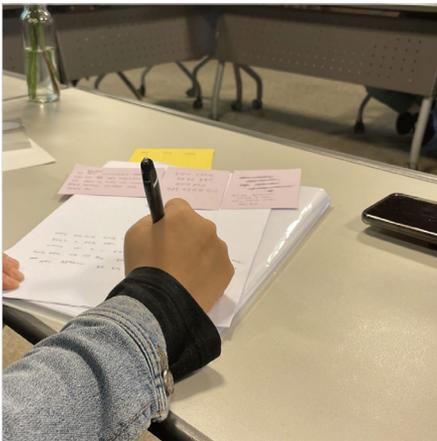
시민 거버넌스

문화도시공론화단, 소식지제작, 굿즈개발, 속초인어공주, 속맘속맘, 속초살이, 오케이쓰담, 마술다속초



###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속초」 공모전 마감

속초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과 사연이 담긴 사진을 수집하여 지역민들의 기억을 아카이빙하고, 향후 이 추억들을 소환하는 콘텐츠를 시민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사진과 사연을 함께 제출해주었고, 이는 앞으로 속초의 시각적·역사적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속초문화관광재단은 문화도시 비전과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방향 연결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제 강의와 멘토와의 대화로 개별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관련 이슈와 주제를 토대로 함께 토론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읽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노리숲길 숲속마켓 홍보 부스 운영

속초문화관광재단은 노리숲길 숲속마켓을 속초시립박물관과 공동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그곳에서 재단은 문화도시속초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만났습니다. 2021년 굿즈개발단이 개발한 속초 굿즈, 오케이속초 소식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속초 단행본』 등 여러 사업성과물을 선보인 시간이었습니다.



## 문화특화지역추진팀 개편

2022년 문화특화지역추진팀은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도시TF팀으로 개편했습니다. 총괄기획자인 MP(Master Planner)를 위촉하고 매니저를 채용하여 문화도시 전담조직체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제5차 문화도시 도전 준비

지난 3월 31일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접수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속초시는 2021년 제4차 법정(예비) 문화도시를 도전했으나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작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공조문화도시 속초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에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 속초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 시 민 거 버 년 스



연계이벤트



문화도시공론화



속맘속맘



속초살이

굿즈 개발



속초 인어공주



마습다 속초



소식지제작





# 속초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이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변화합니다.  
속초 시민과 함께 공존문화도시 속초를 만들어가겠습니다.

